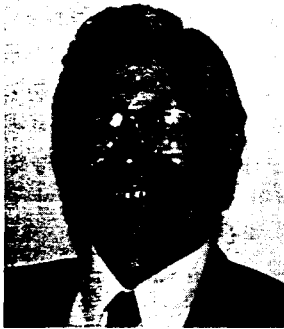


## 교육개혁에 대한 소고



이 승 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

1923년 4월 30일생. 1947년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56년 미국 Minnesota대 대학원 수료. 1974년 공학박사(서울대). 1977-78년 당 학회 회장. 대한민국 원자력위원(비상임) 역임. 현재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 대한전기협회 부회장. 당 학회 중신회원. 학술원 회원

### 1. 인성 교육의 희생과 공부하는 대학 만들기에 관한 제안

교육이 기대하는 효과는 2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질서와 법을 준수할 줄 알게 함은 물론 약자에게 군림하지 않고 빈자에게 베풀 줄 알고 사회에 봉사할 줄 아는 인성 교육과 잘가꾸어진 정서, 강인한 체력, 건전한 정신력을 지니도록 훈련하는 분야이고 그 둘째는 성인이 되어 부모와 사회의 보살핌을 벗어나 독립 인생 항로로 출범하게 될 때 첫 단계 교육에서 터득한 인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헤쳐 가면서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구축하고 경제적 대우를 확보해서 행복한 생을 영위하기 위한 능력의 배양을 위한 학습 분야이다.

전자는 우리 나라에서는 초, 중, 고교에서 이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인성 교육은 경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부문 교육은 나라마다 사회 환경과 재정 형편에 따라 그 교육 기간이 상이하기는 하나 많은 나라가 의무 교육제도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초, 중, 고의 과정에서 학습의 면려를 위한 자극을 주기 위해 평가는 하지만 진학을 위한 판정은 없다. 그런데 이 경우 학교에 우열의 차가 있으면 선택을 위한 경쟁이 필요하게 됨으로서 상급 교육기관은 선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고 진학할 사람은 그 기준에 맞는 수험 준비를 하게 된다. 이는 고른 교육을 할 수 없어 사람만들기에 지장을 초래케 한다. 따라서 이 폐단을 없애려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 교육기관을 평준화해야 한다.

이 경우 평준화에 의해 경쟁이 없어지면 발전이 없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기는 하나 사람만들기 교육에서는 경쟁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있다. 전기한 바 있듯이 필요도 없는 경쟁 제도의 도입은 사람만들기 교육을 근본적으로 해치게 된다. 교육이 잘못되어 인성이 잘 가꾸어지지 않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아무리 경쟁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회라 할 지라도 생을 공영하기 불편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 둘째 단계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문대학,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첫 단계에서 가꾸어진 인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헤쳐가면서 기대하는 생을 영위함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학습의 장 인 것이다. 즉 인간은 그 생을 영위함에 있어 그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능력의 우열은 곧바로 사회생활의 성공을 판가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쟁은 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 인간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경쟁은 이 능력 배양 과정에서 부터 시작되며 그것이 전기한 바 있듯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 단계의 과정 수

료 후 이 과정으로 진입할 때 대학에 우열이 있으면 각 대학은 나름대로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게 될 것으로 첫 단계 과정이 입시 학원화되어 버려 인성 교육에 치명타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없애기 위한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이 대학의 평준화에 의한 입시 제도의 폐지에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진학 희망자의 배정은 국민의식의 발전에 따라 자연적으로 적절히 분산 배정될 것이나 초창기에는 적당한 방법을 정해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그리고 고학년으로의 진급평가 과정에서 자격미달자는 탈락시키면 된다. 이 경우 선진국 대학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대학에서 고르게 우수인력이 배출될 수 있을것임으로 우수 인재의 배출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대학의 교수진은 많이 평준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 남은 것은 교육 시설의 평준화인데 이는 재정 문제에 귀착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자원이란곤 사람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무한 경쟁속에서 사라나갈려면 인재의 양성, 즉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켜 지식과 기술에 의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로 인재 양성에의 투자는 조금도 아까울것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만 투자하면 국내 모든 대학이 선진국 수준의 대학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대학은 인성 경쟁의 시발점이고 국제경쟁력 배양의 도장임을 감안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치열한 경쟁 의식속에 학업에 열중하도록 해야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사람만들기 교육을 위한 초기단계에서 쓸대없이 사력을 다해서 입학시험 공부를 하게 하는데 반해 대학은 노는 대학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이제 부터는 치열한 경쟁심을 갖고 사력을 다해서 공부하는 대학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수의 자질도 자질이지만 교수가 아무 주저 없이 학생의 학습도를 소신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쇠신해야 한다. 그래서 학습평가 단계마다 자격미달자는 소신껏 탈락시키도록해야 한다.

다음에 이에 수반되는 문제로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데 이에 현재의 전문대를 그 전문성을 더욱 세분하여 탈락자들이 각자가 원하는 실무 전문인으로 양성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1. 초, 중, 고, 대 전부를 평준화 한다. 이 경우 투자에 인색해서는 않된다.
2. 입학시험 제도를 없애므로써 인성교육을 회생시켜야 한다.
3. 대학은 치열한 경쟁의식하에 사력을 다해서 면학에 힘쓰는 공부하는 대학이 되어야한다.
4. 3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교수의 자질, 권위를 향상시켜 소신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으로 사람만들기 교육의 정성화, 공부하는 대학 우

수인력의 양성이 달성 될 뿐아니라 과외 수업으로 인한 지출을 경제발전의 자금으로 전환 시킬수 있게 되어 국가 경제력을 크게 신장시킬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 2.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학제개혁안에 대해서

대학의 학부과정은 대체적으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한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학문분야를 그 분야에서 부과하는 교과목을 습득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하는 학습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수는 각자가 담당한 교과목의 신규학설을 교체시키고 소정 기간내에 충분한 내용이 전수될 수 있도록 집약 정리해서 교수한다.

이 경우 타인의 탐구한 학설을 삽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개척한 신학설을 삽입하도록 노력한다. 이와같이 해서 자기 전공분야에 학문적인 공헌이 있음으로서 교수로서의 명망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수는 끊임없는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 경우 연구에 협조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다.

이 연구협조자는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학설을 탐구하는 능력, 소위 신학설 탐수능력을 터득케 된다.

이 관행을 제도화한 것이 대학원과정인 것이다. 이와같이 대학에 있어서의 연구관행이 대학원 체제로 제도화됨에 따라 능률적으로 고급인력을 배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뿐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서 학생과 교수가 더욱 밀접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어 더욱 능률적으로 학문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술발전이 더욱 빨라지고 대학의 교과내용이 혁신된다. 이와같이 새로이 개발된 학설을 즉각 교과목에 삽입함으로써 시대에 뒤지지 않는 전문가를 배출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학문과 대학은 발전을 거듭해 인류사회를 오늘날과 같이 급속도로 발전케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대학에서 법학, 의학등 몇 개 학문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학부과정을 없애고 같은 계통의 전문지식을 습득 하지 않은 타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그분야 대학원 과정을 이수케 한다는 소식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접하게 되어 우려되는 바있어 몇마디 제언하고자 하는바이다. 전기했듯이 대학원과정이 학부과정에서 양성된 전문가에게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시키는 것일진대 개혁안과 같이 타분야 전문가를 대학원과정을 통해서 연구능력을 지니는 우수 전문가가 되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할뿐 아니라 자칫하면 현 제도에서 보다 그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이 더욱 깊은 전문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급변 거론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개혁할 점이 많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기 각 분야 인력이 비교적 우수두뇌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집단이 우수인재로 구성되어 있다고해서 그 분야들의 학문의 난이도가 높은 분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문성의 기반이 될 학문의 난이도로 말 할것 같으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등의 학문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상기 각 분야가 우수두뇌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들이 다른 분야 전문가들에 비해서 월등이 좋은 경제적 대우를 받고 있는데다가 그들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은 거의다 그들의 도움을 간청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 그들 앞에 굴신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많은 사람이 이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게 되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모여들어 기록된 현상이다. 이로 인해 전문분야의 난이도와 이에 종

사하는 전문가의 지능도는 정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학문분야의 난이도와 그 분야 전문인력의 지능이 정합되도록 해야 국가사회의 모순이 제거됨과 동시에 그 발전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의 첫째는 전문가 양성기관의 정원을 전문성의 난이도에 따라 그경제적 대우가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조절되게 하여 타분야와 형평을 이루게 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는 수혜자들이 굴신하지 않아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전향의 조치로서 크게 개선되겠지만 이분야의 전문가들이 훌륭한 인격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성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금 국내 몇개 대학에서 시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개선점이 허다하다고 생각되는바, 선진 제국이 걷고 있는 길이라고해서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더욱 심도 깊은 연구분석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